발아래 펼쳐진 여수 밤바다 황홀경에 '낭만이 절로~'

국내 최초 여수 해상케이블카 타 보니

바다 위 나는 듯 짜릿함 만끽
다도해 풍경 밤 10시까지 감상
초속 10m 강풍 불어도 안전
왕복 1만3000원에 행복 가득

저녁놀 물든 바다위로 해상케이블카가 지나고 있다. 여수 자산공원과 돌산공원간 1.5㎞를 잇는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국내 최초로 바다위를 가로질러 운행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시 제공〉

국내 최초로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지난 2일부터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어 네 번째이다.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이후 5년여 만이다. '관광도시' 여수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를 여수 자산공원 '해야정류장'에서 타봤다.

"아찔하면서도 마치 바다 위를 나는 듯 짜릿합니다."

크리스탈 안전유리로 바닥을 깐 5인승 캐빈(객실)에 오른 탑승객들의 탄성이 일제히 터져나왔다. 오동도와 여수엑스포 박람회장을 위시해 시원스럽게 펼쳐진 여수 바다와 멋진 풍광이 한눈에 들어왔다.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캐빈이 바다에 이르자 투명한 강화유리로 된 발밑으로 푸른 바다가 내려다보이고 손바닥만한 어선들이 지나고 있어 아찔함을 주었다. 바다 위를 지날 때 케이블카 높이는 80여m. 왼편 거북선 대교를 지나는 차량들도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였다.

◇여수항과 다도해 한눈에 만끽=여수 자산공원과 돌산공원 사이(1.5㎞) 바다를 가로질러 운행하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초속 3m 속도로 10여분 정도면 건너편 정류장에 도착한다. 해상케이블카 최고 높이는 98m이고, 바다를 지나는 구간 길이는 650m다.

시간당 1300명을 실어나를 수 있으며,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 10대와 일반캐빈 40대(8인승) 등 총 50대의 캐빈이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쉴새없이 운행한다.

돌산공원 '놀아 정류장' 전망대 편은 여수항과 다도해, 여수 도심을 한눈에 즐길 수 있고, 자산공원 '해야 정류장'은 여수신항과 엑스포장을 만끽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밤 10시까지 운항하기 때문에 여수 야경과 밤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 여수해상케이블카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지난 2일 개통되자 관광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온화한 기후를 자랑하는 여수에서도 가장 추웠던 개통 첫날, 평일임에도 1000여명의 관광객이 대거 몰렸다. 주말인 지난 6일과 7일에는 5000여명을 훌쩍 넘어섰다.

여수시가 지난달 26일 정류장 건축물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을 허가하고, 이어 전남도가 지난 1일 '준공 전 사용신고 및 임시사용 승인'을 함에 따라 케이블카 운행이 가능해졌다.

여수시 전동호 건설교통국장은 "여수포마가 주차장을 건립, 여수시에 기부하면 시가 다시 사업자에게 유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연 3억5000만원의 세외 수입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여수포마 측이 티켓판매금액 3%인 연 3억원을 시에 환원한다는 '공익기부 이행약정서'를 체결함에 따라 지역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교통난 해소대책 마련 시급=여수 해상 케이블카의 높은 인기와 달리 해결과제도 만만치 않다.

그 중 여수시의회 등에서 지적한 교통난 해소가 시급하다.

여수시는 우선 "병목현상 등 교통난이 심각한 돌산공원 내 순환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돌산공원 진출입도로는 좌회전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원 진입차량은 백초초등학교 앞에서 유턴을, 공원 진출 차량은 돌산 회타운을 돌아 돌산청사 쪽에서 빠져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도 17호선 돌산공원 연결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최근 토지사용 승인을 얻어낸 만큼 최단기간 공사를 마칠 방침이다. 여기에 여수경찰이 진행중인 외부 진·출입 교통영향심의가 완료되면 차선 조정과 좌회전 제한 등 실질적인 교통대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실제 여수시의 교통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 전동호 건설교통국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5000여명이 몰렸는데도 돌산공원내 순환도로의 주말 정체가 거의 해소된 만큼 향후 진출입 차로 조정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 가겠다"고 밝혔다.

교통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역 일각에서는 케이블카 안정성 확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개통 첫날 초속 10m가 넘는 강풍에도 운행됐지만, 초속 15m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케이블카 내부에서 큰 흔들림은 느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알프스 삭도를 비롯해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케이블카 등 세계의 많은 시설을 설치한 기술력이 있고 세계 삭도시장의 70%를 점유한 프랑스 포마사의 100% 기술로 건설했다. 여수포마 관계자도 "안전관리책임자 채용과 보험가입, 비상구조 훈련,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 운행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차장 확보와 교통대책을 기본으로 한 교통난 해소, 안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지속적인 대책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여수 해양케이블카 일반 캐빈 이용요금(왕복기준)은 대인 1만3000원, 소인 9000원이며, 편도는 각각 1만원, 7000원이다. 크리스탈 캐빈의 가격은 대인 2만원, 소인 1만5000원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해상 케이블카를 타며 즐거워하는 여성 관광객들.

여수시 '청백-e 시스템' 효과…청렴도 크게 향상

7단계 상승해 전남 10번째

여수시 청렴도가 높아졌다. 여수시는 8일 "민선 6기 출범 후 고강도 청렴시책 등을 통해 공직 청렴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3일 발표한 청렴도 평가 결과, 여수시 종합청렴도는 3등급(7.42점)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10번째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7번째에서 7단계 상승한 결과다.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는 내·외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 평가 설문조사, 부패공직자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감점적용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수시는 지난 1월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4월 청렴지킴이 발대식을 잇달아 가졌다. 이와 함께 부패 유발요인 사전 예방 대책마련과 청렴 의식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시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지난 7월 민선 6기 출범 이후 '부패없는 깨끗한 여수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실행하기 위해 '청백-e 시스템'을 구축했다. 여기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와 시민감사관제를 시정 전반에 확대 추진 중이다.

실제 여수시는 직장 내 청렴 분위기 조성과 청렴 생활 실천을 위해 청렴컵 배부와 각 부서 출입문 청렴패널 부착 등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 효과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 청소년 해양문화페스티벌 12팀 참가 성료

여수에서 여수청소년 해양문화페스티벌이 열렸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오운열)은 8일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엑스포홀에서 지난달 29일 열린 여수청소년 해양문화 페스티벌이 열려 청소년들이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따르면 지난해 처음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바다의 소중함을 알리고 다양한 해양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수청소년 해양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청소년 해양문화페스티벌은 여수·광양·순천·고흥 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된 12개 팀이 밴드와 댄스분야로 나눠 출전했다. 페스티벌 참가 지역 청소년들은 바다를 주제로 한 이날 대회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끼와 실력을 맘껏 겨뤘다.

대회결과 대상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상에는 순천지역 브레인스톰 팀이, 최우수상인 여수시장상에는 광양의 단순피플팀이, 우수상에는 여수 스타즈 팀과 고흥의 어울림 밴드가 각각 수상했다.

특히 이날 페스티벌에는 식전행사로 유명 밴드그룹인 '그랑브루'가 초청공연을 펼치면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오운열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은 "이번 여수청소년 해양문화 페스티벌을 통해 미래 주역 청소년들이 바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